

인터뷰 보고서

인터뷰어 이소정, 박상후, 박수정
인터뷰이 A, B, C, D, E, F, G, H.

- * 학생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.
- * 익명을 요구한 학생들이 있어 불가피하게 전부 A, B, C, 등으로 이름을 작성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- *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하려 하였으나,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 등은 임의로 맞춤법을 지켜 작성하였습니다.

지금부터 독도체험발표대회 준비를 위해 실시한 독도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및 HISTORIA 팸플릿 배부 후, 희망자에 한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.

질문

혹시 이전에 독도에 관련한 포스터를 만들거나 글을 쓰는 등, 독도에 관련된 활동을 해 본 적이 있나요?

- 독도신문 만들기 활동을 했었고, 또 학교에서 나누어준 독도에 관련된 책자를 읽어 봤어.
- 나는 독도를 주제로 한 미술 대회를 나가본 적이 있어.
- 나는 독도 관련된 단체인 'vank'에 가입해서 독도에 관한 사실을 적고 홍보하는 일을 해 본 적이 있어.
- 나는 독도사랑 필통 만들기를 해봤어.
- 정말? 아, 맞아. 그러고 보니 나는 독도에 직접 가본 적도 있어.
- 중학생 때 역사 과목 수행평가로 독도를 주제로 한 신문을 만든 적이 있어.
- 나도 반크 가입해서 애들이랑 독도 홍보했어.
- 나는 중학교 때 영어 수행평가에서 독도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어.
- 나 작년에 학급 테드 할 때 독도 주제로 발표했었어.

질문2

2. 팸플릿을 배부하기 전, 평소 독도에 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나요?

- 독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 만큼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,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화가 났어.
- 맞아, 네이버 번역기에 독도를 입력하면 일본어로 다케시마라는 결과가 뜨기도 해서 논란도 났었잖아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많이 나지.
- 솔직히 별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. 왜냐면 독도는 우리가 사는 곳이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, 그 뭐야, 거리가 멀어서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니까.
- 그것도 그래.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땅이고……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독도 문제도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던 거 같아.
- 나는……,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었어.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정확히 몰랐고, 일본이랑 하는 독도 분쟁이 사실 나랑은 좀 먼 얘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.
- 나도 아무 생각 없었던 거 같아. 설문지 받았을 땐 생각해 보려고 했던 거 같긴 한데, 사실 안 그래도 1인 1위인 하느라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딴 거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었겠어.

질문3

배부한 팸플릿을 보고 난 후, 생각에 변화된 것이 있나요?

- 사실 독도가 중학생 때 시험범위였기에 카이로 회담 같은 개념을 암기만 했지, 실제로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어. 근데 팸플릿을 보고 나서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을 증거로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대해서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게 됐고, 또 왜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됐어.
- 나는 일본이 무슨 근거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지도 몰랐어. 일단 관심도 없었고 당연히 헛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. 근데 생각보다 자료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더라. 그래서 내가 독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어.
- 맞아. 나도 '내가 독도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'라는 생각이 들었어. 또, 얼른 독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일본에게 독도를 진짜 뺏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.
- 난 그래도 독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팸플릿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던 독도에 대한 지식으로는 일본인들에게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을 설명을 해 줄 수도 없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반박하지도 못했겠구나 싶었어.
- 그 팸플릿에는 일본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주 간략하게만 나와 있잖아, 그래서 일본이 주장한 내용을 조금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.
- 난 팸플릿에 나오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중학교 역사 수업 때 분명히 배운 것 같은데 이 조약의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줄 몰랐어.
- 난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국제 사법 재판을 거부할까?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판결도 그렇게 나지 않을까? 우리가 아무리 일본보다 국력이 약해도 국제 사법 재판소가 편파적으로 심사를 할까 궁금했었는데 이 팸플릿을 읽고 나니까 궁금증도 해결되고 왜 우리나라가 국제 사법 재판을 거부하는지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아.

질문4

팸플릿을 보고 난 후에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? 도움이 되었다면,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?

- 도움이 되었어. 나는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게 일본이 먼저 주장했는데, (그 답변으로) 대한제국 칙령 제 41조 같은 여러 자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. 일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 적혀있으니까 (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.)
- 일본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일본의 주장과 우리나라의 주장 동시에 둘 다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.
- 맞아. 나도 그랬어. 단순히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이유가 아닌 일본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들이라서 그런지 독도를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.
- 지도가 있으니까 뭔가 더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아. 사실 난 삼국점양지도라는 것을 처음 봤는데 이런 지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.
- 난 국제사법재판소를 거절하는 이유를 잘 몰라서 답답했는데 이번에 팸플릿을 읽으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조약을 위주로 판결하는데 그 조약들이 예전 제국주의 열강들의 결과물이라서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답답한 마음이 풀리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.

질문5 팸플릿을 볼 때 이해가 잘 되었나요?

-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어. 대화 형식으로 되어있고, 디자인도 좋아서 눈에는 잘 들어왔지만, 글이 너무 길고 생소한 이야기가 많아서 지루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.
- 난 반대였어. 되게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이 잘 요약된 것 같았어.
- 나도. 가독성도 되게 좋았고 사진자료가 있어서 이해하기도 쉬웠어.
- 맞아.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팸플릿이 좀 귀여워서(웃음) 이해하기 쉽게 보였던 것 같아.
- 독도가 왜 한국 영토인지 잘 이해가 되었어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. 글이 좀 많은 것 같아.
- 난 글이 많아도 대화 형식이라서 조금 더 읽기 편했던 것 같아.
- 사실 나는 글이 많은 건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충격이나 쇼크 이런 걸로 눈길을 끌려고 한 게 좋았던 것 같아. 카드뉴스 같아서 보기 재밌어.

질문6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했을 때, 반박을 할 수 있나요?

-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 막연히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것만 알아서, 정확히 대답은 할 수 없을 것 같아. 하지만 안용복이나 이사부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대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.
- 솔직히 그 상황이 되면 당황스러워서 잘 못할 것 같아.
- 나도 그 상황에 가면 못할 것 같은데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.(웃음)
-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.
- 아니, 못할 것 같아.
- 나는 역사를 잘 몰라서 완벽히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팸플릿 내용 정도는 기억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?
- 맞아, 지도나 사법재판소 이런 건 모르더라도 리스크 문서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.

질문7 설문지에 써 주셨던 독도에 대한 내용이나,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알게 되셨나요?

- 학교에서 독도에 관한 교육을 많이 받았고, 무한도전에서 힙합과 역사를 콜라보 한 것처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독도 문제를 많이 다뤄서 알게 되었어.
- 난 독도골든벨 같이 독도에 관련된 대회가 많아서 참가했을 때 외웠던 게 조금 기억나.
- 대회 나갔을 때 개인적으로 찾아봤어.
-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 다 외우고 있지 않아? 난 그거 기억나서 그거 썼는데.
- 나도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 썼는데.
- 나 반크 했을 때 배웠던 거랑 홍보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.
- 나 테드할 때 썼던 내용이 탭에 있길래 그거 보고 썼어.
- 난 독도 신문 만들 때 조사 했었긴 한데 기억이 하나도 안나.

질문8 평소에 그런 정보를 알 만큼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편이었나요?

- 솔직히 말하면 그건 아니었어.
- 맞아, 그렇긴 해. 일단 뉴스 이런 데서도 잘 보도 안 해주는 편이잖아.
- 그것도 그렇고, 우리가 그거 찾아볼 만큼 한가했던 것도 아니지. 우리 계속 MSMP하느라 바빴잖아. 그거 끝나고는 시험 치고 뭐 하고 하고 한다고 계속 뭐가 있었고.
- 우리가 사실 세상사 알기에 엄청나게 불편한 데 살긴 하지.
- 사는 거 아니고 장기 체류. 하여간,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독도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이 없는데, 한국사 시험 볼 때 시험 범위에 있으니까 맨날 벼락치기로 외우고 시험 끝나면 다 까먹고 그러는 거지, 그냥.
- 나 중학교 땐 독도가 시험 범위도 아니어서 쌤들도 시험 범위 수업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어.
- 그게 대다수긴 함. 일단 나만 해도 중학교 때 독도 자체를 아예 수업 시간에 안 배웠어.

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.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